



세 종류의 인생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칼럼

기고

인생(人生)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을 말하는데 사람은 태어나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불어 인간(人間)으로 살면서 욕심을 채우며 가진 자가 되려고 노력하다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빈손으로 떠난다. 사람이 태어나서 인간으로 더불어 살면서 살아가는 방식을 곤충의 삶과 비교한 글이 있어 소개한다.

곤충은 먹이를 구하기 위한 방식이 각각 다르다. 거미와 개미와 꿀벌의 먹이 구하는 방식을 인생과 비교해 본다. 첫째 거미 같은 인생이다. 거미는 먹이를 가장 많이 얻기 위하여 최대한의 줄을 쳐 놓고 그 줄에 걸리는 곤충을 잡아먹고 산다.

인생도 거미 과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약한 사람 착한 사람들이 걸러들도록 해서 그 범망에 걸리면 그걸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하며 수고와 노력 없이 남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이다.

둘째 개미 같은 인생이다.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준비하는 곤충이다. 이 개미과에 속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산다고 자부하며 산다. 남도 돕지 않고 꾸지도 않으면서 자기만을 위해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사람은 세상에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이다.

셋째 꿀벌 같은 인생이다. 꿀벌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곤충이다. 꿀벌은 열심히 모으고 저장하여 자기도 살고 남에게도 이익을 주는 삶이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여 나도 살고 남도 이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는 꼭 있어야 할 사람이다.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우리 모두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꿀벌 같은 삶을 살았으면 한다.

필자는 학교 재직 중에 관찰원을 조성하면서 관찰원 안에 꿀벌(양봉)을 길렀으며 학생들이 꿀벌을 관찰하고 친숙해지면서 여왕벌 수벌 일벌들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며 사회생활을 하는 모습을 본받게 했고 꿀벌들이 모아

놓은 벌꿀을 맛보게 했다.

우리는 먹어야 할 물을 구하기 위해 우물을 파는 사람이 있고 파놓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며, 목이 마르지만, 물을 길어 오기만 기다리다가 누군가가 물을 길어 오면 제일 앞장서 물을 마시려는 사람이 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물이 귀한 중동지방에서 아브람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으며 다른 곳으로 옮겨 갈 때는 그 우물을 다른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물을 누군가가 길어다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속칭 기회주의자라고 한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회가 오면 앞장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을 말한다. 세상에는 이런 기회주의자도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필자의 옛 고향 집 들배나무에는 때 까치가 집을 짓고 알을 낳아 새끼를 치려고 알을 품었는데 꾀꼬리는 때까치가 알을 품고 있으면 때까치 집에 알을 낳고 때까치알을 밀어내어 버린다. 그러면 그것도 모른 때까치는 꾀꼬리알을 자기가 낳은 알로 착각하고 부화하여 깨어나면 먹이를 물어다 꾀꼬리 새끼를 키웠다. 자기가 낳은 알을 때까치가 품어 부화시켜 주고 먹이까지 물어다 길러 주니 얼마나 편리한 것인가! 그러나 알을 낳아 새끼를 번식해야 할 때 때까치로 서는 치명적인 피해다. 그러나 꾀꼬리는 나무 그늘에서 “피플피플 파르르, 피플피플 파르르.” 노래하며 여름을 보내고 자라난 새끼와 함께 어디론가 떠났다.

인생의 삶에서 세종류의 인생과 삶을 곤충과 비교해 알아보았으며 꿀벌 처럼 자기도 살고 남에게 이익을 주는 보람된 삶, 우물을 파서 다음 사람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게 한 아브람의 배려와 고마움을 살렸고, 꾀꼬리와 때까치의 삶에서 기회주의자는 없어야 한다는 것을 살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애국선열이 있었기에 후손들이 행복한 국가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의 부류에서 살고 있으며 인간 삶의 진리를 반성하여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더욱 자랑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한다.

꿀알바, 재택근무, 고소득? 현금 전달책 위험성

변인석 강진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요즘 뉴스나 sns에 많이 올라 오게 있습니다. “현금 전달책, 1020 세대 위험성 노출” “현금전달책 대부분이 20대” 용돈이 부족하고, 알바 시간도 부족한 1020 세대들이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올라오는 ‘꿀알바, 고소득’에 속아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되어 행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채권추심, 이체알바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글을 올려 건당 15만원~2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 해주겠다는 모집 공고를 올립니다.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은행, 케이피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고객을 만나 대출금을 받고 무통장으로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객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입니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전달 받아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체 알바는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쪼개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는 일을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범죄 수익을 돈세탁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500만원을 송금하니 5등분씩 송금해라, 그렇다면 5%-10% 사이의 커미션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속입니다.

사기범들이 실명계좌로 송금을 하면 금융기관, 수사기관의 추적을 당할 수 있어 이체 아르바이트생의 계좌를 이용해 돈세탁을 하는 것입니다.

“난 지시대로 했을 뿐이다,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수거책, 이체알바 같은 경우 사기범죄의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져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대가를 약속하고, 면접 절차 없이 채용,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음을 의심하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고수익, 꿀알바 보장”와 같은 달콤한 말에 속아 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범죄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신고	182	▲인광알고콜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윤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서로 배려하는 선진 집회문화를 정착해야 할 때

오건우 광양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집회 시위는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상대방과 대중들에게 의견을 말하고 동의를 얻기 위한 수단이다.

집회 주최 측에서는 보통 대중들에게 의견을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확성기 사용, 도로 점용, 도로 행진으로 자신들의 목적과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

최근 출퇴근 시간대 집회 행진으로 인해 경찰에서 교통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었다. 하위 1개 차로로 행진을 하여도 차량 통행량이 많아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행진대열이 교차로 통과 시 고의적 서행 형태로 진행되면 신호 끊기로 교통관리를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는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몇몇 운전자는 집회참가자와 경찰에 불만을 느끼고 민원을 제기하는 예도 있다.

집회 주최 측은 보통 사측 또는 정부를 상대로 집회를 개최한다. 헌법적 기본권 보장, 합의사항 준수, 임금협상 등 주요 쟁점도 다양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더 높이고 결과를 얻기 위해 불법과 합법 사이를 넘나드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세부적인 법률 개정 등을 통하여 집회관리의 보안도 필요하지만 먼저 나의 주장만 관철하면 된다는 생각, 타인이 불편을 당해야 나의 목소리를 들어 준다는 생각은 개선되어야 한다.

일반 시민들의 평온을 보장하고 집회 상대방 서로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준비 집회문화, 서로 배려하는 선진 집회문화가 정착 되길 바라본다.

기고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